

開 會 辭

宋 泰 雄

<한국세라믹학회 시멘트부회 회장>

제34회 시멘트 심포지엄이 성대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행사를 주관하여 주신 한국양회
공업협회와 각 회원사에서 종사하시는 임직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거리를 왕립해주신 원로 교수님들과 한국세라믹학회 회장님, 그리고 시멘트 관련
산·학·연의 여러 분야에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강과 연구 발표를 준비해주신 분들께는 감사의 말씀과 함께 훌륭한 발표로 이번
심포지엄을 더욱 빛 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시멘트 심포지엄은 오늘로 34회 째를 맞으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시멘트 산업의 변모와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발표와 토론을 통한
기술의 공유뿐만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씩 함께 모여 동병상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시멘트인의 우애를 두텁게 하는 뜻 깊은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우리 스스로가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시멘트 업계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과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연탄 값의
상승과 대체 연료의 원활하지 못한 국내 수급에 따른 연료비 부담, 날로 증가되는 중국
저가 시멘트의 위협, 실제보다 부풀려진 시멘트의 환경 위해성 논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CO₂ 문제, 시멘트의 국제 규격화와 고성능화, 미래의 시멘트 전문가의 육성 문제 등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심포지엄에서 발표될 특강과 연구 결과들은 시멘트의 친환경적 제조 및 활용,
원가 절감, 생산기술의 향상, 품질 향상 및 신제품 개발 등에 관련된 다양한 내용으로서,
위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에 조금이라도 접근하기 위해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는 훌륭한 토론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시멘트 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시멘트
연구에 전력투구하여 1년 후에 또 있을 본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시멘트 업계와 학계의
발전엔 더욱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